

# 하이코리아와 투자 협약 체결

## 도·남원시... 건축자재 압출 OEM 생산업체로 신규 일자리 창출기대

전북도와 남원시는 14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전혜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하이코리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하이코리아는 지난 2011년 전북 남원노안산업단지 2지구에 남원 제1공장 신축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이번에 남원노안산업단지 3지구에 9,995.7㎡(3,024평) 부지에 60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남원 제2공장은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하이코리아가 남원에 제2공장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권에 지지부진했던 기업유치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30여명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을 꿈꾸는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하이코리아는 2009년 창업한 신생기업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창호의 약점인 열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소재인 PVC프로파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인 (주)KCC와 (주)동양강철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 (주)KCC와는 입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주)동양강철과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광복상대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하이코리아는 급변하는 국내?외 건축시장에 발맞춰 기술력을 확보한 건축자재 압출 전문 OEM 생산업체로 평가 받는다.

전혜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주)하이코리아가 열정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혁신의 노력을 다해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1인 창조 마케팅 지원 사업'에 8개 기업 선정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8개 주관기업을 선정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브랜드 개발, 방송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를 말한다.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은 홈페이지제작, 홍보동영상제작, 카탈로그제작, 포장디자인제작, 제품디자인, 브랜드(CI/VI)개발, 검색엔진마케팅, 방송광고, SNS마케팅 등 15개 세부과제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8개의 1인 창조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을 널리 알려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이러한 우수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이끌 예비창업자들을 육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상반기에만 1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별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과제 수행 중이다. /고민형 기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완주군서 홈퍼니싱 창업스쿨 개강

## 역량강화 역점 전문 컨설팅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센터장 박영자)에서는 여성창업촉진과 1인기업 육성을 위해 14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홈퍼니싱 창업스쿨을 개강했다.

이번 개최되는 창업스쿨은 세분화된 전문 현장실습교육과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동기부여

와 역량강화에 역점을 뒀다. 홈퍼니싱은 여성들의 선호도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수요후 수요생태계는 경영전략, 사업화계획, 기술, 마케팅, 인건비 등 창업예정자에 대한 단계별 현장맞춤 전문 컨설팅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박영자 센터장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20대~30대 여성청년들의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접목시켜 인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을 유도하고자 한다. 창업의 기초이해와 마케팅,사업계획 등 창업준비에 관한 내용과 제품양산을 위한 제작프로그램위주로 알차게 준비했다. 전문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많아 기대가 크다.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고민형 기자

# 현대홈쇼핑, 10월 말까지 여행상품 특별방송

현대홈쇼핑이 오는 30일까지 주 4~5회 여행상품을 편성하는 '여행박람회-판타스틱 투어 특별방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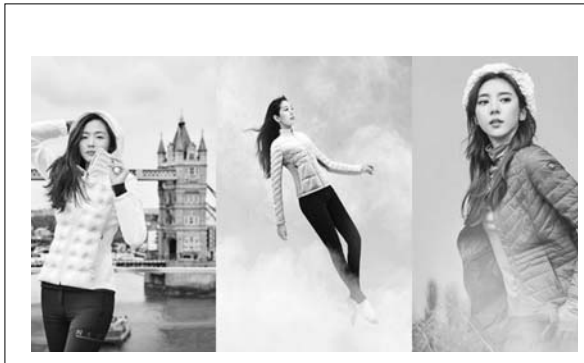
이번 방송은 한진관광, KRT, 더좋은여행, 투어2000, 보물섬투어 등 7개사

가 참여한다.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발칸반도 등 유럽 상품과 함께 베이징, 상하이 등이 준비됐다.

현대홈쇼핑은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각 방송별로 현금 경품 60만원

과 의무건조기 3대를 증정한다.

김태현 현대홈쇼핑 렌탈팀 여행상품 책임MD(상품기획자)는 "특급 호텔, 전망대, 곤돌라 등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점점 치열해지는 경량패딩 판매 경쟁. 전지현·손담비·박신혜 세명이 패딩 모델로 나섰다.

#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 전쟁'

## 스타급 여배우 앞세워 경량패딩 판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스타급 여배우를 앞세워 경량패딩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는 가볍고 코트 등 다른 옷과 겹쳐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도어 업체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각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을 앞세워 보온성은 높고 중량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지현, 손담비, 박신혜가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해낸 아웃도어 패딩을 만나보자.

전지현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와 함께 한 올 F/W 패딩 자켓 화보를 통해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운동할 때나 도심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시크한 무드를 연출하는 슬림핏과 세련된 컬러감을 통해 선보였다.

전지현이 착용한 스카이라인 재킷을 반영해 각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을 앞세워 보온성은 높고 중량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지현, 손담비, 박신혜가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해낸 아웃도어 패딩을 만나보자.

## ◇손담비, 따뜻함도 스타일도 놓치지 않는 '여자인 이는 핏' 완성

가수 겸 배우 손담비는 하반기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와일드로즈의 화보 속에서 자신만의 세련된 존재감을 드러냈다.

손담비는 넉키와 소매에 변형을 준 경량 패딩 스타일을 그 너머의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소화해냈다. 길어가는 계열 속 흰색 모자와 붉은색 패딩 점퍼의 만남을 통한 감각적인 코디와 함께 손담비의 우월한 비율과 분위기가 조화를 이뤄 패션 아이콘다운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또 슬림한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컬러로 핏이 살아 있는 경량 패딩을 활용해 아웃도어에서도 도심에서도 모두 착용 가능한 실용성 룩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 ◇박신혜, 일상 속 가볍고 편한 아웃도어 표현

말레의 CF영상에서 박신혜는 반스매 티셔츠와 스카니진이라는 심플한 차림으로 등장한 뒤, 다운 재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플하고 멋스러운 룩을 완성한다.

박신혜가 착용한 말레 코시 헬리움 다운 재킷은 따뜻한 공기를 가두어주는 힘이 우수한 구스 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등판에는 일반적인 가로 퀼팅이 아닌 사각 형태의 박스가 반복되는 형태의 퀼팅 방식을 적용해 박신혜의 슬림한 핏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뉴시스

## ◇박신혜, 일상 속 가볍고 편한 아웃도어 표현

말레의 CF영상에서 박신혜는 반스매 티셔츠와 스카니진이라는 심플한 차림으로 등장한 뒤, 다운 재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플하고 멋스러운 룩을 완성한다.

박신혜가 착용한 말레 코시 헬리움 다운 재킷은 따뜻한 공기를 가두어주는 힘이 우수한 구스 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등판에는 일반적인 가로 퀼팅이 아닌 사각 형태의 박스가 반복되는 형태의 퀼팅 방식을 적용해 박신혜의 슬림한 핏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뉴시스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컨퍼런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발효컨퍼런스가 오는 21일 오후 7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효컨퍼런스 주제는 'Slow-food로서의 발효식품산업'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발효식품을 비롯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를 활용한 발효식품 시장분석, 발효식품과 미생물/발효조건, 미래 식품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민권 센터장(정보산업지원센터), 권대영 박사(한국식품연구원), 황세란 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해소하고, 슬로우푸드시대에 맞는 식품 제조 산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산·학·연 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추진하는 산·학·연 통합 컨퍼런스는 식품기업들의 니즈(needs)를 해소하고, 발효식품분야의 미래 트렌트를 파악하고, 향후 시장 대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이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제1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민형 기자

# 1인가구 소비지출 급성장 전망

최근 1인 가구의 비중 증가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긴 가운데 관련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약 200조 원 가까이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업체 및 가전·가구 업계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에 발맞춰 소포장 상품 소형 가전, 소형 가구 등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 구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일부 전문가들은 "2006년 16조원에 불과하던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2010년 60조원으로 증가했다"며 "2030년에는 19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연령 상승 및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커짐에 따라 1~2인 가구 대상 서비스 시장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소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새로운 현상을 앞으론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